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강행 방침

베트남 정부가 경제단체들과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방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9일 보도했다. 웡웬 반 삌(Nguyen Van Sinh) 건설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회의에서 건설부가 관련부처에 의견수렴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부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삌 차관은 "주택법 개정안은 소유주들이 수십년동안 사용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판 쑹 리(Phan Trung Ly) 전 국회 법사위원장은 "아파트 소유기한은 필요한 정책이나 주택 소유주들과 투명하게 소통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토지소유권과 아파트소유권(건물소유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다오 응옥 응히엠(Dao Ngoc Nghiem) 베트남 도시개발계획협회 부회장은 "소유기한을 법률로

베트남 유럽기업들, 외국인 노동허가 간소화 요구



베트남내 유럽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최근 열린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 유로참)와 호찌민시 지도부간 간담회에서 알랭 카니(Alain Cary) 유로참 회장은 "2020년 정부 법령

152호(의정 152/2020/ND-CP)가 발효된 이후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는 특히 베트남과 27개 EU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법령 152호는 외국인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을 시작하기 최소 15일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쑹 쿠엣(Trung Khuat) 유로참 인사교육위원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2달반이 걸리고 심지어 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당국의 늦은 일처리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다.유로참에 따르면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최신 업로드된 문서도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신청을 했더라도 자주 수정을 요구하는 답변으로 인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베트남자동차협회, 국내 조립차 등록세 50% 감면 요청



베트남의 자동차관련 협회와 지방정부들이 침체에 빠진 자동차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국내 조립차에 대한 차량등록세 50% 감면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고 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 등 업종단체와 지방정부들은 최근 팜 민 쩌(Pham Minh Chinh)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특별소비세 납부 연말까지 연장, 국내조립 차량 등록세 50% 감면 등을 건의했다.VAMA는 "고급리와 대출규제로 자동차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VAMA에 따르면 1월 자동차 판매량은 1만7852대로 전월대비 60%,

(인사이드비나 2023.03.08)



은 이후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현지매체 브이엑스프레스(VnExpress) 독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영구 또는 50년 소유로 되어 있다.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70년 소유기한이

(인사이드비나 2023.03.07)

알 수 없다.그러나 이에 대해 웡웬 람(Nguyen Van Lam)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이 실수로 늦게 일처리를 하거나 수정을 빈번히 요구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개선사항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유럽기업들의 또다른 불만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있다.현행 152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이에 대해 유로참은 베트남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음에도 학사학위가 없거나, 이전 회사가 파산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

(인사이드비나 2023.03.08)

중국 3월 15일 부터 베트남 단체관광 재개



중국 정부는 3월 15일부터 중국인의 단체해외관광이 가능한 국가 목록에 베트남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관의 반 더 도안 문화 참사관은 수요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협력부 웡웬 푸엥 호아 국장이 Vnexpress지에 전했다. 호아국장은 회의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관광 협력을 지속하고 각국 관광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2월 6일 중국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을 받을 수 있는 초기 국가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6개국도 포함됐다.HSBC는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올해 베트남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50~80%에 해당하는 300만~450만 명의 중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Vnexpress 2023.03.08)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페널 "씬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I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 283. 2000 | T. 028. 3511. 1075 / 1095




먹는물 필터로 만든 명품 샤워기

옥실 전용 12 단계 정수 필터

렌탈 (월) : 450.000 (VND)
일 시 물 : 4.500.000 (VND)
1년치 필터 포함 + 바이러스 제거 샤워기



**독물 소독약
세균 제거
100%**

NSF

고객님들께 추천 드립니다

01

아토피 / 여드름 / 피부가려움증 / 탈모로 고생하시는 고객님들

02

피부가 예민하시고 피부노화를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03

녹물 0% 잔류염소 0% 곰팡이균 0% 바이러스 0% 박테리아 0% 각종 세균 0%

**K-water 필터는 LG 정수기에 납품하는
동일 회사의 필터 소재를 사용합니다**







국내 검사 시험 및 인증






호지민 081.455.3849

하노이 079.251.9055

TALK kwatern

www.kwatervn.com

Ch

씬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리 단속했더니 국민 일상'고통'심화 베트남의 아이러니



베트남 정부의 부패단속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뉴스핌지가 9일 보도했다. 일할 비리로 흥역을 지른 공공의료 현장은 의약품 부족으로 붕괴와 직면하고, 뇌물 스캔들이 터진 자동차 검사소는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보도를 종합해보면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과 병원인 비엠티 등은 의료 장비와 약품이 부족해 지난날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야박로 모두 미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있다. 하노이 바카이 등 대형 병원들도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 필요한 환자들을 다 병원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노이의 주요 암 시설인 K병원은 주사비늘과 카테터 등을 환자가 직접 구매해 오도록 했고, 동나이성 큰 병원에서선 암 환자에 처방할 몰핀 주사제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공공의료 시스템 마비는 베트남 정부가 남퐁 비리에 연루된 의사와 관료들을 구속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일괄징수를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비리와 관련해 우유엔 타인 롱 쯔 보건부 장관과 주 응옥 아잉 하노이시 전 인민위원장을 제명하고 90여명 이상을 구속했다. 현재도 공공의료 기관 등의 의약품, 바이오제약, 테드스키르,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납품·일괄비리를 수사 중이다. 또 의료 장비들의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질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여지 처벌을 수 있다는 무사안일 복지부덕의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위급한 환자에 맞서는 장비와 약품이 있더라도 엄격한 정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찌민시 보건부 부국장은 "(정부가) 신상 초유의 전염병에 대응했던 의사와들의 신뢰와 열정,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의사들이 참여하기를

의사와 관료들을 구속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일일구급장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 납품비리와 관련해 우유엔 타인 롱 전 건강부 장관과 주 응옥 아영 하노이 시 전 인민위원장을 제명하고 90여명 이상을 구속했다. 현재도 공소장으로 기관 등의 의약품, 바이오제 품, 토크스틱,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뇌물 수수·일탈비리를 수사 중이다. 또 의료 장비 등의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차별받을 수 있다는 무관심으로 복귀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위급한 환자에 맞는 장비와 약품이 있더라도 엄격한 정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췌민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비상 조치의 전염병에 대응했던 의사와의 신뢰와 열정,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의료는 신변 예방과 통제에 의사가들이 참여하기를

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의양강 등에 인양 요건을 불과 1년여 만에 완료했다. 베트남 정부는 1개 업체의 견적만을 받아도 장비와 약품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 의료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는 의약품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품질도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기조차 어려웠다"며 "전국적으로 1~2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무조건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고 하면 (엄한 처벌을 감수하고) 누가 규정을 어기겠느냐"고 비판했다. 자동차 등록·검사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자동차 검사소 31곳 가운데 24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한다. 문을 연 7곳이 이달 내 시험할 수 있는 물량도 최대 3만 780대로, 대상 차량(7만 5700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호찌민시 등 베트남 대부분의 자동차 등록은 마찬가지로이다. 자동차 사증기관 역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근무인력 수백여 명이 도주하거나 무더기 휴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이들 기관의 뇌물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공안부 소속 28개 지방경찰은 그동안 검사센터 62곳과 등록부서 4곳을 압수 수색해 무려 37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차량의 조영, 브레이크, 배기기관 등의 오류를 무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등록해 주고는 수식에서 수십만 베트남동(VND)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대적인 수사에 "인권이 도주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현저한 언론에 보도될 정도다. 한 자동차 등록기관 관계자는 "연제체 포획되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휴가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검사 유효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검사소 앞에서 꼬박 이틀을 대기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순차를 등록하지 못해 운행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기한이 만료돼 상당수 운전자들이 벌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아직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2023.03.09)

(뉴스핌 2023.03.09)

베트남, 커피수출 2030년 60억달러 목표

베트남 커피산업은 2030년까지 수출 60억 달러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및 투자에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인사이더가 지난 7월 8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커피커커오협회(Vicofa)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커피 생산량은 147만톤으로 전년대비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커피 생산량 감소는 두리안, 아보카도 등 경제성 높은 작물로 전환되면서 경작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경작지 감소와 지난해 재고 감소로 올해 커피 수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Vicofa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산 커피 수출량은 170만톤, 수출액은 39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 전례없는 이 같은 생산·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산 커피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다.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제세제(글리코세이트) 사용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세계최고의 커피생산국인 브라질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특히 2020~2021년 브라질의 작황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유럽 및 미국으로의 커피 수출이 줄면서 베트남산 커피가 수출할 수 있는 환경도 호전됐다. Vicoft 부회장이 또 하 남(Do Ha Nam) 임팩트스톡홀름(Intimex Group) 회장은 “동맹성(Lam Dong)과 당농성(Dak Nong) 등 두 주 커피산지 외에도 커피나무 식재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데 투자를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고 시급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부고원농업대학연구소의 켄 빈(Tran Vinh) 박사는 고급품종 커피인 아비라카(Arabica)를 매년 적을 현재의 8% 수준에서 15~20%로 확대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을 조언했다. 이어



파라 농업농촌개발부는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 고수의 · 고품질 커피품질 연구 · 개발과 함께 인적자원의 양성, 재배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 등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두 수출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커피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베트남산 커피브랜드를 적극 알리며, 한국-일본-EU-미국 등 전통적 커피수출시장 외에 아세안과 중국과 같은 잠재적 시장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베트남 내수시장의 커피 소비는 앞으로 수년간 5~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루베니(Marubeni), 루이스드레퓔스(Louis Dreyfus), 인스턴타(Instanta), 인터텍스그룹, 올림픽(Olympic) 등의 글로벌 인스턴트 커피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커피 가공공장 생산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9)

(인사이드비나 2023.03.09)

이스토어가한다!

안동사과

3년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한박스 18과 약 5KG

599,000동

연락처: 091 854 0463

카톡아이다:KG531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베트남 정관장 모든 제품은 **JM GROUP**에서
독점으로 수입하고 유통합니다

행복의 3월 여성의 달

사랑하는 여성에게 **꽃과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공식 판매점 정관장의 모든 상품은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고 수입됩니다

KOREA GINSENG CORP.

Hồ Chí Minh	Hồ Chí Minh	Hồ Chí Minh	Bình Dương	Bà Rịa - Vũng
Pharm. D. Vinhomes Central Park P5-S1106, Park 6, Vinhomes Central Park, 723A Điện Biên Phủ, P.22, Quận Bình Thạnh KR: 0904 806 664 VN: 028 3636 7429	KGC Brand Store Midtown Signature Quận 7 Shop 26A, Midtown Signature, Nguyễn Lương Bằng, P. Tân Phú, Quận 7, TP.HCM KR: 0794 730 394	Pharm. D. Lotte Mart Quận 11 1F-18, Tòa Nhà Ever, Số 968 Đường 3/2, P.15, Quận 11, TP. HCM KR & VN: 078 975 8704	Pharm. D. Bình Dương 127 Đường 30/04, T6 B, Khu phố 6, Phường Phú Hòa, Tp.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ương KR: 0904 380 342 VN: 0772 125 559	KGC Brand Store Vũng Tàu 269 Trưng Dăng Đình, P.3, Tp. Vũng Tàu KR: 0938 227 235
KGC Brand Store Diamond Plaza Tầng 4, Diamond Plaza, 34 Lê Duẩn, P. Bến Nghé, Quận 1 VN: 028 3820 8800	KGC Brand Store Quận 7 56 Nguyễn Đức Cảnh, Mỹ Khánh 3, P. Tân Phong, Quận 7, TP. HCM KR: 0937 804 171	Pharm. D. Quận 12 260M Tô Ký, P. Trung Mỹ Tây, Quận 12, TP. HCM VN: 096 204 6568 / 028 6277 8569	Hà Nội KGC Brand Store Hà Nội 101T3 Trần Văn Lai, Khu Mỹ Đình, Sông Đà, Q. Nam Từ Liêm, Hà Nội KR: 0961 182 466	Pharm. D. Lotte Mart Vũng Tàu 1F-18A, Góc Đường 3/2 & Đường Thị Sách, P.8, TP. Vũng Tàu, Bà Rịa KR: 0789 758 704
KGC Brand Store Crescent Mall Quận 7 Số 101 Tôn Dật Tiên, P. Tân Phú, Quận 7, TP.HCM KR: 0902 201 205	KGC Brand Store Quận 3 211B Hai Bà Trưng, P. Võ Thị Sáu, Q. 3 VN: 028 3820 880	Pharm. D. Masteri An Phú SH15, Block B, Masteri An Phú, 179 Xa Lộ Hà Nội, P. Thảo Điền, Tp. Thủ Đức KR: 0902 994 355	Pharm. D. Đức Ngủ Hà Nội 119 Đức Ngủ, P. Liễu Giai, Quận Ba Đình, TP. Hà Nội VN: 0948 602 199	Đà Nẵng KGC Brand Store Đà Nẵng Số 1 đường Bùi Thị Xuân, P. An Hải Tây, Q. Sơn Trà, TP. Đà Nẵng KR: 0867 719 300
Pharm. D. Phú Mỹ Hưng 80 Cao Triệu Phát,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P.HCM KR: 077 804 5550 VN: 028 5410 971	KGC Brand Store Quận 8 11A Đào Cam Mộc, P.4, Quận 8 VN: 0937 000 808	KGC Brand Store Q. Bình Thạnh P. 06B, Tầng Lửng, Tòa nhà Sapphire 1, 92 Nguyễn Hữu Cánh, P. 22, Q. Bình Thạnh, KR: 0909 543 111 VN: 028 3535 251 / 0973 867 055	Tiền Giang KGC Brand Store Mỹ Tho Số 10 Ấp Bắc, P.4, Tp. Mỹ Tho VN: 0903 005 577	Pharm. D. Đà Nẵng 52 Hùng Vương, Phường Hải Châu 1, Quận Hải Châu, TP. Đà Nẵng KR: 0901 155 159


















DAILY AD



신짜오베트남

XIN CHAO VIETNAM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유 단독방 50여곳에 배너

LG전자, 베트남 R&D법인 신설

LG전자가 베트남에 운영 중이던 연구개발 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23%로 (R&D)센터를 공식 법인으로 승격시키고 미래 1위를 차지했다. AVN 시장에서도 2021년부 먹거리인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고 연합뉴스가 터 꾸준히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9일 보도했다. 이날 LG전자는 8일 베트남 하 LG전자는 이번 R&D법인 설립을 통해 현재 노이에서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했다고 750여명인 베트남 R&D법인의 전장부품 관련 밝혔다. 베트남 R&D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 개발인력을 2024년까지 1천 명 수준으로 30% 먼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 이상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2016년 베트 당한다. LG전자 전장(VS)사업본부가 집중하 남 생산법인 하에 하노이 전장 R&D센터를 설 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주행 관련 정보와 엔 립한 후 2020년 다낭에 R&D센터 본소를 추가 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하는 등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풍부 로, 텔레매틱스와 오디오 · 비디오 · 내비게이 한 베트남 현지에서 전장사업 연구개발을 강 선(AVN)이 주요 제품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 화해했다. 인력 육성과 확보를 위해 2021년부 레지티 애널리틱스 자료를 토대로 LG전자가 터 다낭과 인근 지역 소재 대학교와 우수 인재 추천한 점유율에 따르면 LG전자 텔레매틱스 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입사를 보장하는 등



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 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 영 중이며, 올해는 하노이 소 한다 계획이다. 이상용 LG 재 대학교로 확대할 예정이 전자 VS연구소장(전부)은 "차 다.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 세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겸 인먼트 시스템 강화와 함께 자 증하는 R&D 인프라와 역량을 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완성차 스템, 합작법인 LG마그나 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 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 공하는 전장 솔루션을 선보일 레인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3.09)

베트남에 공들이는 미국



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동 밀착하며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나이성 비엔hoa 공군기지. 미국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AID)' 의 수장인 서맨사 파워 처장과 호 양쑤안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마주 본 채 샴을 들고 묘목 한 그루를 심는 행 사를 거행했다고 보도했다. 7일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서 약 35km 떨어진 동나이 성 비엔hoa 공군기지. 미국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AID)' 의 수장인 서맨사 파워 처장과 호양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마주 본 채 샴 을 들고 묘목 한 그루를 심었다. 갓 뿌리 를 내린 나무에 함께 물을 준 뒤엔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 큰 비엔hoa이 두 사람이 서 있 던 곳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와 1970년대,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 에이전트 오렌지' 로 오염된 땅이다. 당 시 최대 규모 미군 기지였던 지금의 비엔 호아 공군기지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고 엽제가 뿌려졌다. 이후 2017년 양국 합 동조사 결과, 기지 일대 토양 50만㎡가 다이옥신 등 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돼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USAID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제1차 작업이 시작 됐다. 10년간 3억 달러(약 4,000억 원)를 들여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게 목표다. 3 년 3개월쯤이 흐른 이날, 미국 측이 오염 물질 정화를 마친 일부 지역(2만9,382㎡) 을 베트남 국방부에 우선 되돌려준 것 이다.이날 파워 처장과 찌엔 차관의 기넌 식수 행사는 50여년 전 서로를 향해 충 베프리를 겨눴던 두 나라가 적대적 우산을 청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징 적 조치 중 하나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 남아시아 지역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 기도 하다. 미국은 남중국해 패권을 장악 하려는 중국을 견제 · 압박하기 위해 동 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에

(한국일보 2023.03.09)

호찌민시, 상습정체 1군 응웬빈끼엠- 디엔비엔푸 로터리 철거 추진



호찌민시가 상습정체 구간인 1군 응웬 빈끼엠-디엔비엔푸(Nguyen Binh Kh- iem-Dien Bien Phu) 로터리를 철거할 시 간대에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대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시 교통경찰 당국이 최근 교통 운송국에 보낸 제안서에 따르면, 로터리 가 교통체증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 다며 신속히 신호등 교차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20년에 지 어진 60m 직경의 이 교차로는 주요 간선 로인 디엔비엔푸길과 응웬빈끼엠길이 만 나는 곳으로 도심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교통당국에 따르 면 이 로터리는 특히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대 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9)

Grab 어플 검색창에서 '건강상회' '락토피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접속 · 주문 · 배송 · 결제 편리하게 이용

Grab Mart 운영시간 : 월-토 09:00am~19:00pm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건강상회 | Hygee Life Co.,Ltd with Grab Mart | Show room-Saigon Pearl

장내 미생물 균형, 장건강, 소화 기능 개선,면역강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

대한민국 1위 생유산균 브랜드

LACTO-FIT

정식수입 공식유통 개시! 냉장전데이터 운송

삼성베트남,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지기업 10년간 10배 증가



삼성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현 지기업이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 도했다. 최주호 삼성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최 근 현지매체 투오이제(Tuoi Tre)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지원산업 기업의 글로벌 공급 망 편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33개 기업이 삼성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됐다.삼성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 망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베 여중인 현지기업은 2014년 25개에서 2022 트남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서 건설정면 터 257개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을 파견해 약 400개 현지기업의 역량 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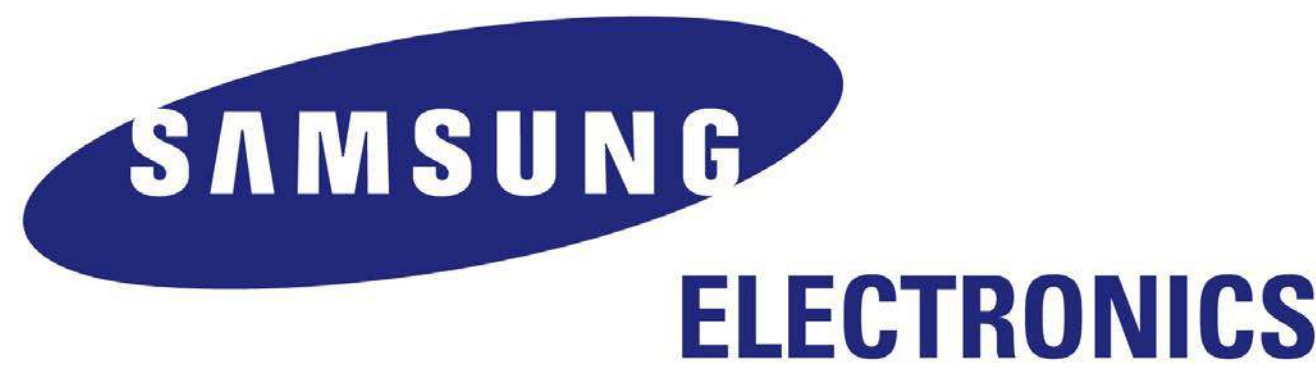
(인사이드비나 2023.03.09)

싱가포르전력그룹, 베트남 푸옌성 태양광단지 2곳 인수



싱가포르 국영에너지기업 싱가포르전 력그룹(SP Group · SP그룹)이 베트남 중남부 푸옌성(Phu Yen) 태양광발전단 지 2곳을 인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8일 보도했다. SP그룹의 베트남 태 양광발전단지 인수는 이번이 처음으로 유로플래스트푸옌(Europlast Phu Yen) 과 탄롱푸옌(Thanh Long Phu Yen) 2 곳이며, 발전용량은 각각 50MWp씩 모 두 100MWp 규모다.유로플래스트푸

삼성전자, TSMC 출신 엔지니어 부사장으로 영입



삼성전자가 파운드리(found-리) 반도체 장비 기업인 스 리 · 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 카이테크 최고경영자(CEO)를 인 대만의 TSMC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 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 당하는 AVP 조직을 신설하고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에 나섰 전자는 TSMC 출신 린준청처 다.린 부사장 영입에 앞서 패 를 반도체(DS) 부문 어드벤스 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드패키징(AVP)팀 부사장으로 애플 출신의 김우평 부사장을 영입했다. 린 부사장은 TSMC 미국 패키징솔루션센터장으 로 선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3.09) 가로, 삼성전자 입사 전에는

엔과 탄롱푸옌은 각각 연간 을 설립하며 베트남시장에 60GWh, 70GWh의 전력을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베트 생산하는데, 이는 3만3600 납내 옥상태양광 발전용량 세대의 전력 수요에 해당하 을 115MW 이상으로 확대했 는 규모다.지난해 SP그룹은 다.SP그룹은 CJ올리브네트 2025년까지 베트남에서 옥 워크(CJ OliveNetworks)와도 상태양광 발전용량을 1.5GW 50MWp 규모의 베트남 옥상 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태양광 개발 협약을 체결했 밝혔다.싱가포르 최대 에너 으며, 지난해 5월에는 베트 지기업인 SP그룹은 현재 자 남 최대 신발 제조업체 태광 국 외에 호주에서도 송배전 비나실업(TKG, Taekwang Vinal)과 계약을 체결해 3곳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태 의 공장에 20MWp 규모로 옥 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특 상태양광을 설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9) 히 2021년 2월 SP에너지베 트남(SP Energy Vietnam)

(주)BW산업개발

베트남 최고의 임대공장 및 임대창고

10대 핵심산업 도시 ★ 35개 프로젝트 ★ 2.465백만평의 토지 보유

BWID고객 수 211개 기업 24개국

- ✓ 위치: 하노이, 호찌민시 인근 - 약 30분부터
- ✓ 즉시 입주가능
- ✓ 다양한 면적 (최소 302평)
- ✓ 저렴한 임대료
- ✓ 공장설립 무료상담 및 인허가 무료지원

➢ BWID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십시오

핫라인: (+84) 28 710 29 000

이메일: leasing@bwidjsc.com

Kakao Talk ID: VaniDang



센자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